2022 년 9 월 25 일 "(침례식) 침례의 의미와 합당한 삶"(딤후 2:11-13)

침례의 의미와 침례 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이 합당한지 생각해보겠습니다.

[1] 침례의 의미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면 공동체가 그의 믿음을 공적으로 확증해주는 예식을 침례식이라고 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요한이 강에서 주던 침례 행위를 본 따서 행합니다(마 3 장).

두 단계:

(1) 물 속에 잠김: '믿기 전의 나의 옛 사람은 죽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의미합니다(11 절).

(2) 물에서 나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삶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11 절).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 성도의 변화된 삶

'참고 견디면' ->'인내'를 언급합니다(11 절). 성경에서 인내는 자기 한계까지 버티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순종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시려는 계획과 목적을 품습니다(12 절). 다스림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과 주변을 돌보고 섬기고 가꾸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창 2:15). 따라서 참 다스림은 자기중심적 생각과 태도를 넘어서고 자기 희생까지 불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사랑하기에 실패하죠. 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 누리면 모습과 태도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의 합당한 모습은 사랑받는 사람다운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사랑받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도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사랑하기에는 때로 실패할 지라도, 사랑받기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침례의 의미를 각자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물에 잠기는 것과 물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하여 말씀해보세요.